정광학원 교원 채용 합격자 6명 순위 뒤바뀐 사실 확인

"이사장·이사·교장·교감 해임하라"

시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 부당 합격 교사들에겐 손 못써

정광학원 이사장의 교원 채용비리 의혹 제기〈본보 2월 2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합격자 가운데 6명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장과 이사, 교장, 교감 등 4명을 해임토록 요구했다.

사학 비리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해임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위원회 등이 주장한 사법 고발 조치와 부당 합격자의 합격 무효 조치 등은 제외돼 '맥빠진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이 제기한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합격자 16명(정규 6명, 기간제 10명) 가운데 6명(정규 1명, 기간제 5명)이 부당하게 합격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원은 지난달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았으며, 전형 요소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서류심사 순위 등이 부당하게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전형 요소에 없던 기간제 교사 경력 가산점, 복수전공자 차별 적용 등을 통해 순위를 뒤바꾼 것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S이사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장과 교감도 해임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법인측에 부당하게 합격한 교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 학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모두 18명의 기간제 교사를 같은 방법으로 채용했으나, 임용기간이 넘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시 교육위원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감사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합격자 순위를 뒤바꾼 배경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감사 능력이 없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될 텐데,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위원은 "이번 채용 비리로 탈락한 응시생의 구제 방안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부당하게 합격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탈락한 응시생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육위원은 "해당 법인이 시교육청의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측이 시정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감축 등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인 만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원은 최근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이 합격자 순위 변경, 조작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으며 인사위원장이었던 고교 교감을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청장 누가 될까

강희락 청장 취임 … 고위급 후속 인사 촉각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가 9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경찰청 주요간부 및 전국 경찰관 대표 등 6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의 낙마를 전후로 40여일간 지연됐던 경찰 고위급 인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청은 10일 지방청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12일께 지방청 차장급 인사, 15일께 총경 승진 인사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임 광주경찰청장에는 박영헌 전남경찰청장이, 전남경찰청장에는 유근섭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최병민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발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임 전남경찰청장으로 거론되는 유 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를 나와 완주경찰서장과 전북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지방청장급 인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경정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1~2월께 실시된 고위직 인사가 올해는 한 달 이상 늦어진 만큼 후임 인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 안팎에선 12일께 지방청 차장급에 이어 이르면 15일께 총경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경급과 경정급 인사는 다음주 중에 단행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748〉 김종두

도박사이트 9억 개설 챙겨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억원을 챙긴 지모(40)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지씨는 형(44)과 함께 2007년 4월 28일부터 경기도 시흥과 안산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 사이트 가맹점을 모집해 41억3천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가운데 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어김없는 산불…

무등산 등 산불 잇따라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광주 무등산 등 인근 야산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지역의 실효습도는 예년의 경우 봄철 50~60%대를 유지했으나 최근 40% 선까지 크게 떨어졌다.

9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소나무 60그루 등 임야 0.3ha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2대와 산림청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잡목이 많고 고지대여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정오께 동구 소태동 무등산 8부 능선에서 불이나 소나무 200그루와 잡목 등 임야 0.5ha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등산로에 버린 담뱃불이 낙엽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실효습도(實效濕度)= 당일 습도 외에 전날과 전전날 등 3일간의 평균치를 낸 습도. 목재의 건조 정도나 화재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이날 실효습도는 여수 40.1%를 최저로 ▲광주 43.7% ▲완도 44.8% ▲흑산도 50.8% 였다.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 25% 이하일 경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다.

한편 국립과학원은 최근 10년간 3월 산불발생 빈도를 열흘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초순에는 영남에서 주로 발생하던 산불이 중순에는 전남과 경북내륙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전남(44건)과 경북(34건) 지역에서 크게 증가해 전남과 경북내륙으로 산불이 이동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9일 정오께 광주시 무등산에 불이나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자 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잇단 차량 방화

광주 주택가 이틀새 3건

광주지역 주택가 등지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 차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새벽 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모 교회 주차장에 세워진 김모(39)씨의 버스에서 불이 나 44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버스 뒷좌석 덮개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새벽 4시께엔 남구 월산동 주택가에 주차된 김모(41)씨의 그레이스 승합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경찰은 김씨의 승합차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점과 인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후사경이 파손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3시10분엔 광산구 산정동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이모(43)씨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나 5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광주에서만 이틀새 3건의 차량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스 흡입·필로폰 투약 가출 청소년 등 8명 검거

환각물질인 공업용 니스를 흡입한 10대 가출 청소년 7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공업용 니스를 구입해 흡입한 광주 모 중학교 3년 이모(14)군 등 7명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공업용 니스를 비닐봉지 안에 담아 10분 정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경찰도 이날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박모(47)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지구대 경찰에 딱걸린 전화사기범

쌍나팔

○…고흥경찰 녹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최근 '사이버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

○…9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황모(35) 순경은 지난 5일 오후 고흥군 녹동신항 인근 모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앞에서 휴대전화 음성에 따라 현금 590만원을 막 입금한 주민 김모(45)씨를 발견하고 김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 사기 피해를 방지.

○…황 순경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전화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현장근무를 서던 중 김씨의 조급한 행동을 이상히 여겨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김씨는 경찰에서 "'사이버 경찰청'이라는 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았다.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고 감사.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